

# 더민주 지역 조직정비 '계파 갈등' 재연

## '친노' 양산갑 송인배 사퇴 "권력 도구로 이용 말라"

### 대대적 물갈이 반발 확산...당권·대권 맞물려 긴장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역 조직을 정비하며 기존 위원장 교체에 나서자 일부 지역위원장이 "숙아 내기"라고 항의, 사퇴하는 등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지역조직 개편이 이후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은 물론 내년 대선후보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잠잠했던 계파 전쟁으로 번지는 것이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최근 활동을 본격 시작하면서 "나선 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대대적인 지역위원장 물갈이를 예고했다. 김 대표도 "너무 오래 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숙아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운영해 달라"며 힘을 실었다.

조강특위는 이날 1일부터 3일까지 지역위원장 후보를 공모하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110개 지역구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 진영을 물갈이 대상으로 겨냥했다거나 뒷날 호남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했다는 관측 등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1일 친노 인사로 분류되는 송인배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이 조강특위의 이런 방침에 반발, 지역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기

자회견을 열어 "총선 성공여부를 지역위원장 선정 기준으로 삼겠다는 조강특위의 일성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국민이 만들어 준 선거 마음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취해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원과 국민이 목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당내 일각에서는 송 위원장이 친노 인사라는 점을 들어 김 대표의 '물갈이' 시도에 친노 진영의 반발이 시작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았다.

당내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그동안 대선후보 경쟁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당권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강특위의 지역정비 작업을 두고 각 후보 진영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당권 경쟁에도 불이 붙으리라

는 관측이다.

당내 일부에서는 호남지역 민심 회복을 위해 친노 진영 인사들을 지역위원장 인선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더민주의 당내 역학 구도에서 친노 및 친문 진영이 지배적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서 원외 지역위원장에서는 어느정도 비노 진영을 고려, 세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차기 전당대회 당권 도전에 나선 주자들은 당내 최대 세력인 친노 및 친문 진영과의 연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지금 당에 요구되는 것은 변화"라며 "이는 지역위원장 공모 및 심사 등을 통한 인적 쇄신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지역위원장 응모 지자체장까지?

## 광주 민형배·최영호 구청장 검토...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덧붙이었던 광주에서 국회의원 8석을 모두 내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에 일부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당인으로서 응모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오는 3일까지 진행되는 더민주 지역위원장 공모에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최영호 남구청장이 각각 광산읍과 동남갑에 응모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광주 지역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맡아왔지만 총선에서 더민주가 정패하면서 이번 공모는 총선 낙선인,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뒤섞여 기준에 없

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두 구청장 측은 해당 지역위원장 응모가 접해지는 인사를 상대로 응모 포기를 우회적으로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구청장은 총선 전 지역 의원들의 잇단 탈당으로 공석이 된 지역위원장직을 한시적으로 맡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지역위원장을 맡게 되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행정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위원장은 노골적으로 정치성을 띤 자리이지만, 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자리인 만큼 각각의 역할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자치단체장이 지역위원장을 맡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최원길기자 cki@

# '열공 모드' 국민의당

## 정책역량워크숍 주 3회로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입기 시작과 함께 '열공'에 들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8차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5월 들어 7차례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지만, 이날부터는 매주 화·수·목요일 아침에 전체 의원이 모여 간단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강도를 높였다. 이런 식으로 6월 말까지 총 15차례의 워크숍이 계획돼 있다.

다루는 주제는 일자리 예산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공공교육의 사교육 극복

방안, 동북아 국제정세와 한반도 문제, 전관예우와 기득권 카르텔, 일자리와 함께 하는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 등 굵직한 현안 정책이다.

국민의당이 정치적 중립과 별개로 민생·정책 행보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정책역량강화 강령군을 통해 내부를 결집하고 '공부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 제고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임정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이 '글로벌 스타트업 붐과 한국의 도전'을 주제로 전 세계적인 창업 물결을 소개하면서 국내외 현실과 제도 개선점에 대해 발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비대위 구성' 묘수 찾은 새누리

## 위원 10명중 절반 당외 인사로...내일 추인만 남아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임명 및 비대위원 인선을 위한 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가 오는 2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비대위원에 친박(친박) 진영이 반대했던 인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오는 2일까지 비대위원 인선안을 마련해 당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추인을 받을 계획인 가운데 31일 오전 민경욱 원내대변인을 통해 비대위원 인선 기준 일부를 발표했다.

비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위원에 당내 인사와 당외 인사 5명씩 임명하기로 했다. 또 당내 인사에는

정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홍문표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 당 3역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원직 위원을 제외하고 새 비대위에 합류할 당내 인사 몫은 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당내인사의 참여를 줄여 '계파 논란'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출범이 무산됐던 '정진석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내정됐던 인사들의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숫자상으로 볼 때 당원직 위원을 제외한 기존 비대위원 내정자 대부분이 비대위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실시하라

지난해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씨 딸 백도라씨씨가 31일 오후 국회 청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백남기 대책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야3당과 대책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 "구조조정 원인 규명부터...대통령 직접 나서야"

## 더민주·국민의당, 대정부 압박수위 높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조선 해운업 전체 사태로 불거진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정부 압박에 대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조조정에 앞서 정부와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의 원인과 책임 규명이 먼저고 대통령이 전면에서 나서라는 것이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구조조정에 대해 야당이 문제제기만 했지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데 더민주가 구조조정 시급성을 제기해 공론화가 시작한 것"이라고 강

조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어 "기업이나 경영주, 채권단의 책임은 다 무시된 상태에서 어떤 재정에 의해 여러가지를 덮으려는 게 밝혀졌다. 공론화 후 경영자, 채권은행단, 사외이사단, 회계법인 책임이 생기고 하나하나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과정에 야당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그런 모든 책임과 원

인이 확실히 규명되고 나서 금융권 역할을 확보하는 등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정책위의장은 최은열 부의장 등 경제 전문가들이 당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국민이 이해하기도 힘든 양적완화란 이름 속에서 후다닥 덮어 씌워 해결하려 하고, 대주주나 경영자는 모든 걸 근로자 책임으로 하려는 걸 막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정부 압박에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31일 "어려운 민생경제 구조조정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컨트롤타

워 직접 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학자들이 정부는 밀실에 숨어 불안을 조장하는 컨트롤타워를 없애고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올바른 컨트롤 타워에 박 대통령이 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요즘 대통령께서 안 보인단, 일본에서의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 때는 아프리카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문제 때는 보존처 뒤에, 청문회 활성화면 뒤에는 법제처 뒤에 숨었다"면서 "국민을 가르치고 국회를 야단칠 때는 타상을 치셨다"고 힐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신대학교 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안내

**전형일정**

- ① 원서접수 : 2016. 5. 30(월) ~ 6. 8(수)
- ② 전형일 : 2016. 6. 10(금)
- ③ 합격자발표 : 2016. 6. 14(화)      ④ 등록기간 : 2016. 6. 14(화) ~ 15(수)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실용음악학과(M.A.)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

## 2016학년도 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주~2회, PM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을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제)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입학원서 작성	2016. 6. 7.(화) ~ 2016. 6. 17.(금)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우편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2016. 6. 7.(화) ~ 2016. 6. 17.(금) 09:00~18:00
	창구	2016. 6. 7.(화) ~ 2016. 6. 17.(금) 09:00~18:00
전형일시	2016. 6. 28.(화) 10:00~	
합격자 발표	2016. 7. 21.(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신환경농업학/식품·차산업학/지역환경자원공학

■ 문의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n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ECHNOLOGY (GSIAT) KWANGJU NATIONAL UNIVERSITY

## 2016년 상반기 채용공고

건해건설(주)에서는 전문건설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신입 직원과 전문성과 정확한 사무처리 능력을 가진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군무예정지	모집부문	모집인원		경력적 자격요건
		신입사원	경력사원	
본사	공무원	0	0	경력 3년 이상
	재무회계팀	0	0	
현장	중소세종·여수·서해사업부	0	0	경력 무관
	안전관리과	0	0	

**2. 전형절차**

- ▷ 전형절차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
-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 우대조건  
· 건축기사 및 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  
· 시외근무 가능자

**3. 채용조건**

- ▷ 정규직 채용
- ▷ 복리후생 : 4대 보험 가입, 시외 근무수당, 주유비 별도 지급

**4. 접수기간 및 방법**

- ▷ 마감일 : 2016년 6월 10일까지
-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판양식 작성후 이메일 접수 및 우편접수 (영주광역시 북구 첨단인로 66번길 11 3호 신원동-외아타워)
- ▷ 문의사항 : 건해건설(주) T.062) 574-8501
- ▷ 홈페이지 : http://www.gunhae.co.kr

건해건설(주)